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8142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8월 19일 (음력 7월 19일) 화요일

영산강 하구언·진해만 '죽음의 바다'

美 디아스 교수 사이언스 최신호 논문

"산소 고갈 … 해수 순환 등 강구해야"

영산강 하구언 앞바다에서 경남 진해만에 이르는 한반도 남해안 일대가 산소가 고갈돼 생물이 죽어가는 '죽음의 바다'(Dead Zone)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해양과학협회 로버트 디아스 교수와 스웨덴 괴텐부르크대학 루트거 로젠버그 연구팀은 최근 미국의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 실린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한반도 남해안을 비롯, 동중국해, 일본 태평양 연안, 홍콩·타이베이 근해 등 동북아시아 바다와 발트해, 멕시코만 등 전 세계 405개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죽음의 바다'가 지난 1960년대 이후 10년마다 2배씩 늘어나고 있으며 면적은 뉴질랜드 크기인 24만5천㎢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팀을 이끈 디아스 교수와 함께 지난 2006년 국제오염학회에 한반도 남해안의 수질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했던 목포대 임현식(해양수산자원 전공) 교수는 "당시 조사에서 영산강 하구언 인근 바다 바닥의 용존산소량은 1mg/L 이하였고 경남 진해만 바다 바닥도 0mg/L로 사실상 무산소 상태의 죽음의 바다였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영산강 하구언의 경우 하구둑이 만들어지면서 물의 순환이 저하돼 오염이 발생했으며, 이는 곧 빈산소수괴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해수 순환 개선 방안 등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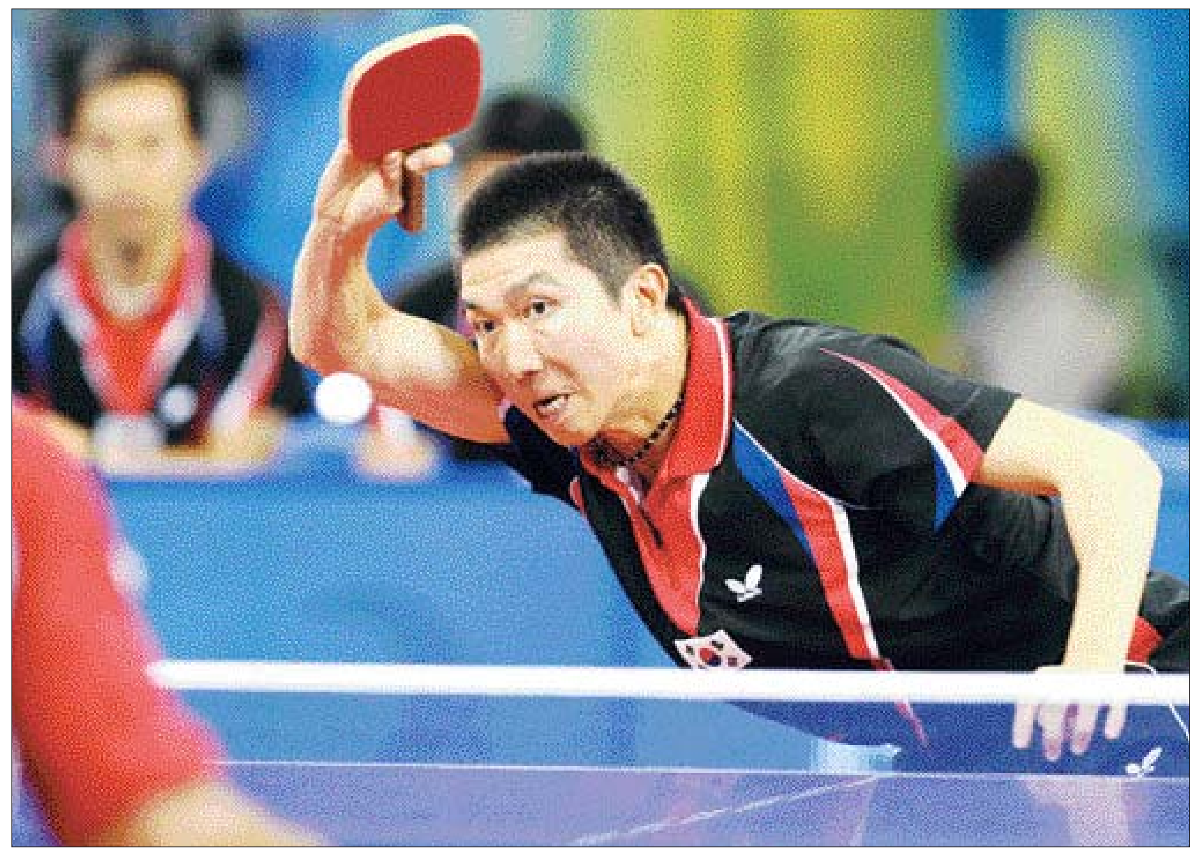
미국-스웨덴 연구팀이 발표한 '죽음의 바다'는 국내에서는 빈산소수괴(貧酸素水塊·용존산소 2mg/L 이하의 물덩어리)로 지칭되고 있으며 주로 여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빈산소수괴 현상이 영산강 하구언 일대, 진해만, 마산만, 강진만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피해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빈산소수괴 현상으로 인해 지난 2006년 전남 인근해역에서 조피볼락이, 2003년 경남에서는 미더덕, 전복 등이 폐사했지만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한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빈산소수괴 현상이 지난달 여수 가막만 해역 등에서 발생한 뒤 현재 여수 경도 해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죽음의 바다(Dead Zone)=질소 비료 등 화학물질이 섞인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발생한다. 부영양화 현상으로 녹조류가 대규모로 번식한 뒤 죽어 부패하는 과정에서 바다의 산소가 고갈돼 생물이 살 수 없도록 만드는 현상이다.



유승민 '강 스매싱' 18일 베이징대학 체육관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탁구 남자 단체 3, 4위전 한국-오스트리아와의 경기에서 유승민이 상대 첸 웨이싱에게 강 스매싱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첨단의료단지, 호남권 선도사업으로 추진"

정부에 채택 요청

국책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광주시(노화의료 산업존)와 전남도(신약개발존), 전북도(방사선연구존)를 아우르는 호남지역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추진된다.

〈관련기사 3면〉

18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정부가 추진하는 5+2 광역경제권 호남권 선도사업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5+2 광역경제권에서 호남권으로 묶인 광주시와 전남·북이 공동 추진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지역별 의료·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광주의 경우 산업기반 시설을 갖춘 첨단단지 일원에 노화의료기기산업단지, 노화의료산업지원 시설을 조성, 노화의료산업·지원존으로 육성된다. 또 남구 노대동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은 노인건강서비스 지역으로 특화된다.

조선대, 전남대 병원 등 의료시설이 모인 광주시 동구는 의료서비스존으로 조성되고, 녹십자 백신공장 등 신약·제약산업 기반을 보유한 화순지역은 신약개발존으로 육성된다.

〈2면으로 계속〉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사·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학술자료 공동연구·교류 협약 체결

광주일보사는 18일 본사 사장실에서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과 학술자료 공동연구 및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동의 관심이 되는 분야의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하고, 세미나, 학술대회,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며 연구 성과의 일반 대중 확산에 함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같은 해 9월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세계 한상 네트워크와 한민족 문화공동체 조사연구' 프로젝트로 3년간 27억원을 지원받아 최근 결과물로 33권의 총서를 완간하는 등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의 기초 자료를 구축했다.

세계한상문화연구단은 이 밖에 '세계 한인 네트워크 개발 인력양성 사업', '근·현대 한인 디아스포라 지식 자원 발굴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계 한민족 인적자원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일보 김진영(왼쪽) 사장과 전남대 세계한상문화연구단 임채완 단장이 18일 광주일보사 사장실에서 공동연구 및 교류협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男탁구 단체 값진 銅

야구, 대만 꺾고 5연승 질주

한국 남자탁구가 결승 진출 실패의 아쉬움을 털고 패자전을 거쳐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

한국은 18일 베이징대 체육관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탁구 남자단체전 3위 결정전에서 오상은(KT&G)과 유승민(삼성생명), 광주 숭일고 출신 윤재영(상무)을 앞세워 오스트리아를 3-1로 눌렀다.

중국과의 준결승에서 패해 패자전으로 밀렸던 한국은 홍콩에 이어 오스트리아까지 차례로 돌려세우고 동메달을 건졌다. 〈관련기사 18·19면〉

이와함께 8년 만의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거침없는 5연승으로 준결승 진출을 확정지었다.

한국은 이날 베이징 우커송야구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예선 풀리그 대만과 5차전에서 9-8로 이겼다. 미국, 중국, 캐나다, 일본, 대만을 잇따라 물리친 한국은 남은 쿠바(19일), 네덜란드(20일)전 결과와 관계없이 상위 4개 팀이 겨루는 준결승에 오르게 됐다.

또 지난 17일 복싱 웰터급(69㎏) 8강전에서 이 체급 우승후보로 꼽히던 드미트리어스 안드라이드(20·미국)를 11-9 판정으로 꺾고 준결승에 진출한 김정주(27·원주시청)는 준준결승만 통과하면 3, 4위를 가리지 않고 메달을 주는 규정에 따라 최소한 동메달을 확보했다.

반면 남자핸드볼 대표팀은 같은 날 오후 중국 베이징 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남자 핸드볼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러시아에 22-29, 7점 차로 졌다.

그러나 지난 10일 독일과 첫 판에서 패한 뒤 덴마크, 아이슬란드, 이집트를 연달아 격파한 한국은 3승2패로 승점 6이 돼 최소한 조 3위로 8강전에 오르게 됐다.

한편 한국 역도 국가대표의 '히든카드' 전상균(27·한국조폐공사)은 19일 역도 최중량급에 도전, 메달권 진입을 노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국가별 메달 순위 〈18일 21시 30분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35	13	13	61
2	미국	19	21	25	65
3	호주	11	10	12	33
4	영국	11	7	8	26
5	독일	9	6	7	22
6	**대한민국**	**8**	**9**	**6**	**23**
7	일본	8	5	7	20

오늘의 빅매치 (19일) 〈한국시각〉

- **체조** 평행봉 결승 — 양태영·유원철 출전 (19시)
- **농구** 여자 8강 — 한국-미국 (17시45분)
- **핸드볼** 여자 8강 — 한국-중국 (19시)
- **야구** 예선 — 한국-쿠바 (12시30분)
- **축구** 남자 준결승 — 아르헨티나-브라질 (22시)